

제13회 대한황실공예대전 수상작 발표

소중한 작가 '안고지기 삼층장' 신품상 수상... 12월 3일까지 전주 기린미술관서 전시

황실문화재단(총재 이석)에서는 2025년 제13회 대한황실공예대전 수상작을 발표한다. 이번 제13회 대전은 작년에 황실회화, 섬유공예, 금속공예 분야에 한하여 실시하다가 올해는 황실도자, 황실목칠공예, 황실한지공예 분야에도 확대하여 명실상부 공예대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실시했다.

대한황실공예대전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종렬)에서는 지난 1월에 정기총회를 갖고, 2차에 걸친 자문위원회, 3차의 운영위원회, 8차의 실무위원회를 거쳐 이번 공예대전을 준비해 왔다. 그리고 한국미술협회 및 18개 지회에 심사위원 풀 추천 등으로 협조를 받아 공예대전 심사의 공정성을 높였다.

지난 10월 22일에 황치석(서울여대 교수) 심사위원장과 방화선 부위원장 그리고 6명의 분야별 심사위원들이 작품의 적합성, 예술성, 기교성 및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심사결과 신품상(대상)에 소중한 작가의 '안고지기 삼층장'을, 모품상(최우수상)에 정정혜 작가의 '화조도'를, 능품상(우수상)에 김영준 작가의 '수복의 빛'이 등극했다.



제13회 대한황실공예대전 입상작 전시 포스터

다음 일품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상에 조애리 작가의 '봉황도'를, 교육감상에 김선희

작가의 '꽃도련님'을, 전주시장상에 이인화 작가의 '신경유철릭'을 각각 선정하였다. 장려상에는 11명이, 특선작으로 14명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황치석 심사위원장은 "이번 대전이 황실회화, 황실섬유공예, 황실금속공예, 황실목칠공예, 황실도자공예, 황실한지공예 6개 분야로 확대되어 전국 각지의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으며, 각 작품에서 전통 기법을 살리기 위한 기품있는 표현과 정통 황실 예술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공예작가들의 열정에 감사를 드린다"고 평하고 있다.

이번 수상작들은 11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기린미술관 전관에 전시된다. 제1, 3관에는 이번 수상작 48점을 그리고 제2관에서는 작년 제12회 대한황실공예대전 신품(대)상을 받은 박진선 작가의 작품 30여점이 초대 전시된다.

이번 대한황실공예대전을 통해 황실문화에 대한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발견했으며, 앞으로도 황실 문화의 뿌리를 찾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황실 문화 발전을 이루어 K문화에 걸맞게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특색있고 독자적인 문화로 정착하고자 꾸준히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훈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2부 '굿패와 무당' (10)

조왕님을 달래자

- 오 상 근 (본보 경제부장) -

내내 굿을 지켜보던 마을 큰 어른이 흡족한 얼굴로 환영의 말을 굿패에게 던져줬다.

"짜짜짜짜~"

금줄 주변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고 곧바로 금줄이 열리고 상쇠는 치배와 잡색들을 선도하여 연행을 이어가며 여덟 자를 그리면서 마을로 들어가는데, 잡색이 어린이이 돌을 무릎을 태워 동개동개 춤을 추며 따랐다.

'둥더 둥 둥더 둥 둥더둥더 둥더둥'

마을로 진입한 굿패는 곧장 당산나무로 향했다. 마을 중앙 공터에 죽이 백년은 되어 보이는 떡갈나무가 버티고 있었고, 굿패는 곧바로 당산굿을 시작하였다.

당산나무를 돈 다음 당산께 인사하고 각 치배들이 나와 개인놀이로 당산께 선을 보이고 인사한 뒤 당산굿을 마쳤다.

마을은 굿패가 고창에서는 알아주는 굿패라는 걸 알고 있는 터라 공터 주변에 차일을 쳐놓고 굿패에게 재공할 막걸리와 죽과 다른 음식들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한판 멋지게 는 굿패는 간단히 요기를 한 다음 잠시 숨을 달랜 뒤에 매굿이라 부르는 마당밭이로 들어갔다.

"백구여, 여기가 어딘고 하니 물 좋고 산 좋고 사람 좋은 고창 도산택네 조왕이렀다.달래자 달래자 조왕님을 달래자."

가장 먼저 부엌으로 들어가 부뚜막 신인 조왕신을 달래는 굿을 시작한다.

덤 쿵 따 덩 쿵 따, 더궁 궁 궁궁 따궁따~

".....목은 액을 몰아내고 새복만 많이 들여보낸다. 어떻게 불러들이고 하니, 정지 구석도 니 구석, 광구석도 니 구석, 방구석도 니 구석 사실이 열두 구석의 액이란 액은 싹삭 쓸어 모아서 저기 해남 갈매리 바위 밑으로 보내는디....."

정재굿을 친 뒤 집 밖으로 나와 장광으로 돌아가서 철통굿을 시작한다.

"백구여,이 집 음식 맛을 내는 기본은 장맛이렀다.음식 맛이 변하지 말라고 굿을 한번 작신작신 쳐준다,취 들어간다 취 들어간다 장광 밑에 취 들어간다. 거기 두어라 잡자~"

덤 따궁따 덩 따궁따, 덩 따궁따 궁궁 따궁따~



".....숫아라 숫아라 맑은 물만 숫아라." 우물가를 빙 두른 굿패는 상쇠의 사설에 이어 우물굿을 쳐준다.

'덤덤 굿따궁 굿따궁따궁따궁'

마지막으로 굿패가 마당에 모여 이집의 제일 웃어른인 성주 가택신에게도 굿을 선사하는데, 상쇠는 긴 사설로 오복만복이 이 가택에 딱 달라붙어 일 년 열두 달 삼백육십오일 복만 다복다복 가득하길 빌어주고 성주풀이 기락으로 마무리한다.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대활연으로 설일이 나리소서,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굿패는 늦은 밤까지 여러 집을 돌아다니며 마당밭이를 하고 마을에서 마련한 거처에서 휴식을 취한다.

다음날 아침 마을 앞 공터에서 미리 각 집에서 추렴한 벼짚으로 줄을 만드는데, 굿패는 또한 굿을 쳐준다. 사람들이 공터로 모이고 남자와 여자들이 편을 갈라 줄다리기를 하는데, 이때도 흥을 돋워주기 위해 굿을 쳐준다.

풀었다 담갔다 하여 서로 주머니 받거나 하다가 결국 여자 편이 이기게 해준다. 여자 편이 이겨야 그해 농사가 풍년이 든다는 속설 때문이다. 이기고 지는 건 문제가 아니고 마을 주민들이 서로 힘을 모아 화합하는 장으로서 굿패는 이런 분위기를 한껏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줄다리가 끝난 줄은 마을 주민들이 함께 협동하여 당산나무에 감아 마을의 한해 안녕과 풍년을 기원한다.

"아들이 뭐시냐 지난번에 무릎을 댔던 애들 아냐? 그새 많이들 컸고만. 허허허"

상쇠 어른이 굿판이 이어지는 동안 바지런히 잔심부름을 했던 남준과 명희를 보고는 강병도와 박규환에게 말했다.

'제35회 동리대상' 김청만 명인 수상

대한민국 판소리 최고 권위의 상으로 여겨지는 '제35회 동리대상' 시상식이 6일 오후 고창 문화의전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올해 동리대상은 판소리 고법 김청만(국가무형유산 판소리 고법 보유자) 명인이 수상했다. 시상식은 현화, 기념식, 시상과 함께 수상자와 제자들이 함께하는 북 산조 공연, 신원희 명창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전통국악 공연, 지난 9월에 전석 매진으로 호평을 받은 동리창극단 고창흥부설전 창극 공연이 열렸다.

김청만 명고는 1946년 목포에서 출생하여 2007년 보라문화훈장 수상, 국립국악원 예술감독, 부산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 대우교수, 서울

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 등을 역임했다. 2013년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고법 보유자로 지정되었고 8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판소리 고수로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

김청만 명고는 "소리꾼을 살리고 복으로 숨결을 이끌어주는 것이 진짜 고수다"며 "전국 각지에서 교육과 후학 양성에 적극 힘써 전통 예술의 뿌리를 단단히 지켜가겠다"고 밝혔다.

동리대상은 고창군이 주최하고 (사)동리문화사업회가 주관하며, 판소리 사설을 집대성한 동리 신재효선생의 문화예술사적 업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판소리 진흥에 업적을 남긴 사람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국내 판소리 부문 최고권위의 상이다.



문 최고권위의 상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 신재효문학상, 이강원 작가 '따오기의 아침' 선정

제5회 고창 신재효문학상의 당선작이 이강원 작가의 '따오기의 아침'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단(이병천·김종광·박영진·이성아·정지아)은 국내 최고의 문인들로 꾸려졌으며, 수상작의 상금은 5000만원이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따오기의 아침'은 전쟁

과 질병으로 가족을 잃고 땅을 파는 건축업자로 살아가는 주인공과 발골을 하는 고교학자 아들의 갈등과 이해를 통해 고창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그린 이야기다.

이강원 작가는 고창군 신태면에서 태어나 원광대학교대학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2020년 '아버지의 첫 노래'라는 작품을 시작으로, '소년의 강', '중장머리 없는 인간'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펼쳤다.

올해 5회를 맞은 고창 신재효문학상은 고창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소재로 하는 문화콘텐츠 제작 기반을 위해 2021년도에 처음 시작됐으며, 당선작은 내년 2월중 출판사 다산북스를 통해 출간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인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공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